

당의(唐衣)에 관한 연구

-궁중 발기와 유물을 중심으로-

권혜진*(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본 논문은 여성 예복인 당의(唐衣)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당의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궁중 발기와 현재 전해지는 유물을 중심으로 당의의 유형과 그 특징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조선시대 각종 궁중 기록과 실학자들의 기록에 나타난 당의 명칭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저고리(赤古里)'에서 시작된 당의 명칭은 '당저고리(唐赤古里)', '당고의(唐古衣)' 등의 명칭으로 혼용되었다가 '당의(唐衣)'라는 최종 명칭으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선시대 시기별 당의 유물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초기 긴 저고리에서부터 시작된 당의는 평상복인 저고리의 단소화 경향과는 반대로 길이가 길어지고 품이 좁아져 그 독자적인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각 시기별로 당의의 형태적 특징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따라서 당의의 명칭의 변화와 그 형태의 변화를 통해서도 당의의 기원이 우리 고유의 복식인 저고리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조선시대 당의는 궁중 소례복(小禮服)으로 왕가 여인들이 크고 작은 예식과 명절 그리고 사시사철 문안예복으로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와 장식의 차이를 두어 그들을 모시는 상궁과 내인들 또한 예복으로 착용하였다. 또한 민간에서는 당의를 반가여인들의 입결할 때의 예복으로 착용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들어 민간에서는 일반 여성들의 예복과 혼례복으로 당의가 착용되었던 것을 실학자들의 문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혼례 때 화동(花童) 격인 어린동비(童婢)에게 족두리를 씌우고 당의를 입혔던 문헌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과 일치하는 조선 말기 혼례 사진과 어린이용 색동당의 유물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민간의 어린이용 당의는 소매를 색동으로 하고 장식용 흉배를 달아주어 장식성을 더한 특징이 있어 흥미롭다. 일제시대와 6.25동란 등을 겪으면서 한때 거의

그 명맥이 끊기게 된 당의는 1950년대 말에 이르러 한국복식사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한복은 생활복의 기능을 잃게 된 터라 당의는 무용복이나 특별한 무대의상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용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문화의 발전과 전통복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계기로 당의는 다시금 여아의 들복과 신부의 약혼 예복으로 착용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 와서는 어린이와 성인 여성의 전통복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조선시대 당의의 유형은 매우 다양했다. 보통 계절에 따라 두께를 조절하는 겹과 홑의 당의 뿐 아니라, 중요한 예식에 사용되는 내작(內作)이 따로 달린 4겹당의가 있고, 독특한 실루엣을 만드는 한 여름용 작은 당한삼이 있다. 특히 겹당의 두벌을 따로 제작한 후 한데 끼워 넣어 착용하는 4겹당의는 왕실의 지체 높은 신분의 여인들이 가례나 관례 등의 특별한 행사에만 착용하는 가장 격이 높은 예복당의였음을 유물과 궁중 발기의 연구 결과 밝힐 수 있었다. 당의의 생상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을 때 초록색 당의는 왕실의 지체 높은 어른에서부터 상궁, 내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민간의 예복으로 쓰일 만큼 당의의 대표적인 색상이었다. 자주색 당의는 지체 높은 왕실의 여인들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 고유명절인 동지(冬至)와 관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제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남송색(藍松色) 당의는 초록이나 자주 당의보다는 격이 낮은 당의로 4월 8일 춘절(春節)과 관계있는 봄철 당의로 생각된다. 흰색 당의는 여름철 당의 또는 상복(喪服) 당의로 쓰였다. 이렇게 당의의 색상은 고유의 계절감을 가지고 있다. 궁중 소례복으로 사시사철 당의가 애용되었던 만큼 당의의 유형과 색상 또한 다양하게 발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의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역사적 전통성을 밝힘으로써 현대 전통복식 계승 연구의 가치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